

## 野·비박 '탄핵연대'...마지노선은 9일

3야, 임기단축 개헌 협상 거부... '탄핵열차' 동승 9일까지 공조

새누리 비주류, 朴 4월 사퇴시한 제시... '탄핵 의결 정족수 확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로 넘기는 3차 대국민담화 여파로 흔들렸던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진영의 '탄핵연대'가 다시 대열을 정비했다.  
〈관련기사 2·3·4·6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장정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지난 30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 등 임기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

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뒤 여의치 않으면 세 야당 대표의 추가 회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고 박 비대위원장이 "국민과 촛불 민심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탄핵열차에 동승해서 2일 처리가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9일까지 함께하자"고 말했다.

야권은 이날 공동 탄핵소추안을 여당 비주류 측에 전달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탄핵의 카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비상시국회의도 이날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여야 간 협상 시한을 8일까지로 선 긋고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9일로 못 박았다. 당내 친박(친박근혜) 측이 내세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로 탄핵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전명과 관련,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탄핵 의결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에서 보류로 입장을 바꾸는 등 중요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3차 담화 이전 40~60명 선으로 추산된 탄핵 찬성의원 중 3분의 1 정도가 입장을 바꿀 경우 탄핵이 부결되거나 탄핵안 발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 등 친박 진영에서는 야권이 즉각적으로 조기 퇴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 3당이 여당과의 '대통령 임기단축' 협상을 거부하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야당이 그것을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말인 3일 열리는 촛불 집회 등 여론의 흐름이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를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임명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박영수 특검 "좌고우면 않고 법대로"

靑 "대통령 직접조사 응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전날 특검 후보로 추천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 전 서울고검장 중 박 전 고검장을 선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면서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 가려지지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고,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따라서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여야의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은 준비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박 특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수원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지낸 '강력 수사왕'이지만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에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특별수사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번 특검 임명으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한술밥을 먹던 사이에서 창과 방패 역할로 만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동계 '시민불복종...총파업' 노동계가 '시민불복종의 날'을 선포하고 4시간 총파업을 벌인 지난 30일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소속 노동자 3000여명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5000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2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4월 퇴진·6월 대선"...빨라지는 대선시계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임기 단축 로드맵 제시를 요구한 상황에서 여권에 '4월 퇴진→6월 대선'설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야권이 '조기퇴진 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고, 대선시기를 놓고 각 정파와 유력 대권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한 만큼 속도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이 스스로 사퇴시한을 내년 4월말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 사퇴'는 지난 27일 국회의장과 총리 등을 지낸 정치권 원로들이 회동을 갖고 의견을 모아 제시한 박 대통령의 사퇴시한과 같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 정치원로들의 주장이 여야 협상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하게 된다면 60일 이후인 6월말에 대선이 치러진다.

야 3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성공하더라

도 조기대선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4월 또는 8월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12월 중으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는 최대 180일이 소요되며, 이 경우 대선은 내년 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월31일 전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월에 박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대선은 4월에 실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구 화재-광주 전통시장 가보니 ▶6면

바다 르네상스...고흥 농동향 ▶18면



KIA, 김병현·최용규·필·지크 방출 ▶20면

50  
-YEAR  
Ginseng Research

#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해화점이 아니므로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